

“비록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왕이 있어도  
만약 토지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백성의 생업을  
안정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부역도 고르게 하지  
못할 것이며, 호구의 수를 밝히지 못할 것이요,  
너물을 막지 못하고 풍속을 두텁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나 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리 없는 것이다.”(《반계수록》 중에서)

## 평등한 농민국가 설계한 개혁적 이상론자의 은거지

《반계수록》의 산실 반계서당을 찾아서

### 초야에 묻혀 독서로 자족하다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 달리면 전북 부안이다. 여기서 국도로 빠져 30분이면 반계의 유허지에 닿을 수 있다. 그의 유허지는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에 있다. 반계의 7대조 할아버지가 임금에게 우반동(우동리의 옛이름)



● 안마당에서 찍은 반계서당. 원래 건물은 한국전쟁 때 불타서 사라졌고, 지금 건물은 1981년 남아있던 주춧돌 위에 복원한 것이다.

일대를 사패지로 하사받은 뒤 그냥 내버려두다가, 반계의 조부 유성민이 광해군 4년(1621)에 내려와 개간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정계진출에 뜻을 접고 전국을 유랑하던 유형원이 이곳에 정착한 것은 그의 나이 32살(1653년)이 됐을 때다.

사상 최악의 황사가 부안군 일대를 덮었던 3월 21일 오후. 자욱한 모래바람을 뚫고 우동리로 접어들자 입구에 반계의 유적비가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이제 반계의 영역에 한발 들여놓은 셈이다. 비석 옆의 팽팡나무 가지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든다. 황사인 줄 몰랐다면 꿈쩍 없이 ‘안개의 고장’으로 기억했을 부안에는 유난히 까치가 많다. 실학사상이 태동한 이 땅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져 정겹다.

“우리 집에 당나라 판본의 서적이 책장 가득하니 한번 와서 읽어봄이 어떻겠소?” 하루는 이름난 양반이 반계를 집으로 청했다. 총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를 가까이 보고 싶어서였다. 책이 귀하던 시절, 반계 같은 독서광에게 이것은 자주 없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거

절하고 만다. “귀세(貴勢)한 가문에는 절대 받을 들이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이다. 초야에 묻혀 평생을 독서와 저술로 일관하며 방대한 학문세계를 이룬 유형원은 엄격한 원칙주의자였고 분수를 지키는 선비였다.

반계의 개혁론이 집약된 《반계수록(磻溪隨錄)》은 그의 방대한 저술 가운데 유일하게 전하는 것으로, 그의 나이 서른에 초안을 잡고 49세가 되던 1670년에 완성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파탄에 빠진 조선사회체제에 대한 재정비안을 최초로 제시한 이노작(勞作)은 토지, 관료, 군사, 노비, 교육 및 인재등용 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그 가운데 토지제도 개혁론이 가장 핵심으로 반계는 여기서 기존의 과



● 우동리 초입에 위치한 반계유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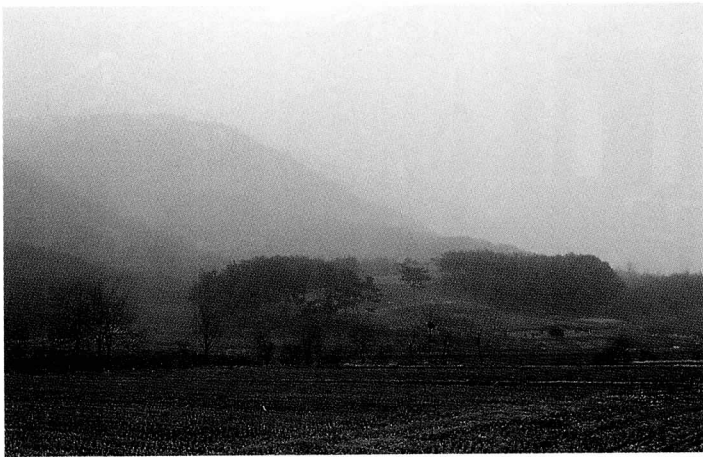
전법(科田法) 대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일반 농민층에게도 땅을 나눠주는 공전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반계유적비에서 눈길을 돌리면 잘 구획된 광활한 논밭이 시야를 채운다. 끝도 없이 펼쳐진 이 넓은 땅이 다 유씨 집안 땅이었으니 반계의 토지개혁론은 토지의 불합리한 소유형태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조금 더 가다보니 논 한가운데 거대한 남근석 같은 것이 우뚝 서 있다. 유형원은 동네 청년들을 모아 상비군을 조직해 말을 타고 저 돌을 돌아오도록 훈련을 시키곤 했다. 가까이 가보니 어른 키 두배는 됴직하다. 논을 주인이 이 돌을 뽑아내려고 포크레인까지 동원해봤지만, 워낙 뿌리가 깊어서 포기했다고 한다.

**황무지 내려다보며 키운 토지개혁 사상** 드디어 목적지 반계서당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보인다. 이곳은 당시 마을의 집회소 구실을 한 ‘모정’이 있던 자리다. 여기서 반계는 농민들과 함께 정치를 논하고 나라를 비평했다고 전해진다. 모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반계의 저택이 있었던 곳이다. 반계의 집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당이 아주 넓었다. 비닐하우스에서 포지석까지

그 큰 공간이 모두 집이었다니 놀라울 뿐이다. 흥년이 들면 반계의 집 마당에 곡식을 한가득 쌓아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기 때문이란단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대숲이 무성해서 주변과 헝사리 구분됐는데 지금은 모두 농토로 개간돼 그의 흔적은 이제 희미하다.

반계서당은 변산 자락에 숨어 있다. 오솔길을 따라 15분을 오르면 거짓말처럼 조그마한 집 한 채가 나온다. 아무도 찾는 이 없이 서당은 산의 일부가 된 채 놓여 있었다. 서당은 반계



● 지금은 농지로 개간됐지만 반계가 살던 시절에는 이곳까지 조수가 밀려왔다.

가 직접 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총 4개의 방이 있다. 한국전쟁 때 변산이 모두 불타 서당도 화염 속에 사라졌지만, 1981년 남아 있는 주춧돌 위에 그대로 건물을 올려 복원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서당 주변의 나무들도 모두 1970년대에 심은 것들이다. 하지만 서당은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고, 원래 소나무와 전나무가 많은 고장이니 예전과 크게 다른 풍경은 아닐 것이다. 다른 방들보다 약간 높여 지은 첫번째 방이 한눈에도 반계가 책을 읽고 저술을 구상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마다 텅텅 비어 어둠만 가득하다. 들리는 것은 새소리고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니, 선비들의 삶이란 게 이리도 적적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얼핏 스친다.

마루에 오르자 소나무 숲 사이로 우동리 일대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지금은 멀리 변산자락이 둘러싼 아랫동네가 모두 농토지만 반계가

살던 당시만 해도 마을 앞으로 조수가 들고 나가며 기암괴석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육당 최남선이 “금강산이 옥으로 깎은 부처라면 변산은 흙으로 빚은 나불좌안상이 다”고 말했듯이 변산 일대는 예전부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서당에서 내려다본 유형원의 눈에도 과연 그렇게 비쳤을까? 그는 왜 이렇게 높은 지대에 서당을 지었을까? 반계는 삶과 정치의 근본인 땅을 매일 같이 내려다보며, 저 황무지를 어서 개간해 기근에 허덕이는 민중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른다.

**사후 1백년에야 세상에 나온 《반계수록》** 유재원이 기록한 《반계선생언행록》을 보면 유형원은 주자학에 정통한 인물이다. 주자학적인 경학설을 따라 경전백가를 두루 읽고 《이기통론》 《논학물리》 《경설》 《주자찬요》 등의 저서를 썼으며, 우리나라의 지리를 분류한 《동국지지》, 한자를 중국의 바른 음으로 읽고자 한 《정음지남》 등 총 20여종의 책을 썼다. 이런 학문적 연마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봤던 전후의 피폐한 실정, 중국에 외교사신으로 드나들던 고모부 덕택에 청대 고증학과 서학을 빠르게 접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이 집약돼 사회개혁론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반계수록》이다.

《반계수록》은 유형원이 죽고 1백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필사본으로 널리 읽혀 이 익의 《성호사설》과 《곽우록》,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큰 영향을 준다. 1770년 학자들의 거둬드는 장소가 받아들여져 왕명에 따라 인쇄·반포됐다는 사실은 이 책이 당대의 식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미뤄 짐작케 한다. 물론 반계의 개혁론이 양반들의 특권을 여전히 인정하며, 노비제도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으면서도 노비의 종모범을 용인한 것 등을 들어 현대의 연구자들은 반계의 사상이 아직 봉건적인 이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고도 평가한다.

황사 때문에 사진상태를 염려해 그 다음날 한번 더 찾은 반계서당은 여전히 적막에 휩싸여 있다. 서당 안쪽과 바깥쪽과 반계가 직접 봤다는 우물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불투명하게 죽은 물이 고여 있다. 그래도 바깥 우물 옆에 심은 버드나무에서는 초록 잎들이

이 돌아나고 있다. 내려오다가 뒤돌아보니 그 나무 뒤로 만년의 반계가 뒷마루에 서서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 부안·강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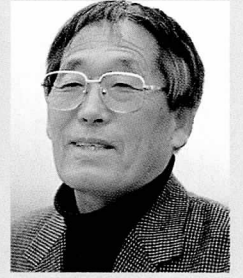


● 산중턱에 위치한 반계서당. 적막에 휩싸여 있다.

## 반계의 개혁정신 후대에 설파하는 반계서당 지킴이

— 향토사학자 유종남씨

유종남씨(64)는 부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아왔다. 젊을 때는 농사를 지었고, 향토청년단에 가담해 지역일꾼으로 끝났다. 예식



장도 한 30년 경영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고향 부안에 관심이 많았다. 부안의 역사를 알기 위해 부안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이기보의 《남행월일기》를 시작으로 고려조 이후 문헌에 비친 부안을 모조리 조사하기 시작했다. 반계와 만나게 된 것도 그 때였다.

“《반계수록》에 실린 선생의 글은 나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틔워줬죠.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한데 빈부귀천이 어디 있는냐는 그의 개혁사상에 매료됐습니다.”

그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해 한문 독해실력이 짧다. 반계를 깊이 알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허지를 찾아오는 교수들과 친분을 쌓아뒀다가 문헌을 들고 찾아가서 함께 공부했다. 그렇게 하나둘씩 유형원의 사상과 인생에 접근한 결과를 1999년 《실사구시의 헛불》(고굴)로 엮어내기도 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반계의 삶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기도 용인에 있는 종손댁에 찾아가 《언행록》 복사본을 구해서 우리말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반계의 흔적이 현실의 논리에 밀려 사라질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반계가 거거하던 집터의 대나무숲을 없앨 때도, 논 한가운데 튀어나온 훈련석을 뽑을 때도 안타까웠지만 반대할 수는 없었다. 대나무는 중국산이 수입되면서 수요가 없어졌고, 돌도 농사를 짓는 데 많은 불편을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유씨는 현재 부안에서 반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 군청을 통한 방문자들만 말아 유허지를 소개해줘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한다. 인터뷰하는 날도 오전에 부녀회 관광단에게 한차례 강의를 했다. 유씨에 따르면 부안군청은 곧 우동리 일대를 유적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반계 서당 옆에 동상도 세우고 강사(講舍)도 지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살아 있는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